

“민주주의’님이 선결제”...44년 전 주먹밥 ‘커피·김밥’이 잇는다

尹 탄핵 집회 광주 5·18민주광장 인근 카페·식당 등 중심 지역 대표 빵집은 팔빵나눔도...“이심전심 퇴진때까지 투쟁”

1980년 5월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광주시민의 '대동정신'이 44년 후 '김밥·커피 릴레이 선결제'로 재현되고 있다. 9일 다수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

행동이 주최한 제4차 광주시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 지난 7일을 기점으로 '동구 5·18민주광장 인근 카페와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먹거리를 선결제했으니 집회 참여자들은 편하게 가져가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광장 도보 5분 거리 알찬김밥에 지인분과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일반김밥 100줄을 선결제 해냈다”며 “인당 최대 3줄까지 가능하고, ‘민주주의’ 이름을 대시거나 집회 왔다고 하면 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는 한 누리꾼은 “핫, 아이스 상관없이 주문 가능하도록 벌크커피 총장점에 선결제를 해냈다”며 “인당 4잔까지 가능하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광장에

서 만나자”고 적었다. 선결제가 이뤄진 카페와 식당의 주인들은 주문을 소화하느라 바쁜 주말을 보냈다고 입을 모았다.

총장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50대)씨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두분이 오셔서 5잔, 10잔을 선결제하시고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나눠 달라고 했다. 지금까지 총 8명이 600잔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선결제가 된 김밥집 사장은 “한 여성

분이 찾아와 선결제를 요청했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전했다.

집회 참여자를 위해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나누는 곳도 있다. 광주대표 빵집인 공전제과는 지난 7일 단팻빵 120개를 만들어 광주비상행동 측에 전달했다.

이렇듯 일면식이 없더라도 함께하는 서로를 위해 기꺼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누며 투쟁하는 광경이 재현되면서

어머니들이 나눠준 주먹밥을 먹고 신문부에 맞섰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대동정신'이 절로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일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물심양면으로 함께한 시민들 덕에 한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며 “80년 오월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가 응원하고 이심전심으로 윤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광주지법, 오전·오후 두차례 집중심리...내년 2월까지 이어질 듯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관여하고 사촌 동생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구속기소)씨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 등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불

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여명에게 총 2천500여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기소내용에 포함됐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이날 재

판에 출석한 안 의원의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피고인 간 조직적 공모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 측도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은 인정했으나 안 의원의 공모 사실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간 입장을 정리한 뒤 오후에 증인 신문문을 이어갔다.

한편 안 의원 재판과 관련된 증인이 30명 가까이 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다음 해 2월까지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안재영 기자

“고흥 우주랜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정당”

광주고법, 원고 패소 1심 유지 판결

고흥군의 우주랜드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결정에 업체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사가 고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흥군이 공모지침서에 규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적 이행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를 취소한 처분은 고흥군의 공법위반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고흥군은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 과학시설과 남해안지역 전체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복합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우주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B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B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사업 시행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고흥군은 2015년 A사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승계를 승인했다.

그러나 고흥군은 2021년 A사와 구체적인 사업 협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고, 이에 A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 감사원은 “고흥군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승계를 승

인해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사업비 122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안재영 기자

철도파업 닷새째...열차 감축 지속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 닷새째인 9일 광주·전남 지역 열차가 평상시 대비 60%만 운행되는 등 감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코레일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호남선 열차별 운행률은 KTX 66.7%, 여객열차 63.2%, 화물열차 0%다.

호남선 KTX는 48회에서 32회로,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호)는 49회에서 31회로 각각 감축 운행되고 있다.

특히 월요일 평균 2대가 다니는 화물열차는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전라선 운행률은 KTX 75%, 여객열차 56.6%, 화물열차 6.5%다. /주성혁 기자



비상대비 민방위 장비검열 9일 광주 북구청 비축물자창고에서 구청 민방위팀 직원들이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화생방 방독면과 응급세트 등 민방위 장비를 검열하고 있다. 북구는 오는 20일까지 비상급수·비상대피시설 176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관리 파악, 민방위 장비 수량 및 작동 유무 등을 점검한다. <광주북구 제공>

“통학로 강제집행 방치 흥복학원 이사진 교체를”

광주교육시민연대 촉구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광주 남구 대광여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학로에 컨테이너가 설치돼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흥복학원 이사회가 토지 조정의 사결정을 미뤘은 데 따른 결과로 이사진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한 개발업체는 10년 전 대광여고 앞 폐건물 부지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에 통학로 일부와 담벼락 등이 포함돼 흥복학원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 지난 2019년 승

소했다.

하지만 학원 이사회가 수년째 인도결정을 유보하자 지난달 16일 해당 학교 통학로 왕복 2차선 도로 중 1차선에 대한 컨테이너를 세우며 토지소유권 행사에 나섰다.(본보 11월 20일 6면)

시민연대는 “학생들은 통행 불편을 겪고 있고 등·하교 시 병목현상, 사각지대 발생으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통학로가 경사로인 데다 겨울철 땅이 얼면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게다가 인근에서는 지역주택조합 공사도 한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안전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의면한 흥복학원 임시이사 전원을 즉시 교체할 것을 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흥복학원 공적 이사에 교육청과 법인 추천 등 총 4명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해 2명의 신입 이사가 선임됐다”며 “이사회 전원 교체 요구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해임결정 사유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법인 흥복학원은 오는 13일 서진여고 1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4년 세입세출 및 학교 통학로 관련 심의를 할 계획이다. /김다이어 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기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사제·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IPGF 국제파크골프연합회 / 파크골프용품판매전시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새우리병원 입구,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 추선회관 방향)